

이철우, 내년 국비 첫 12조원 돌파하라 '특명'

행정통합 지방 소멸 극복 국가 대개조...일본 도쿄도 통합모델 좋은 사례 언급 추석 민생 경제 챙겨라...

추석을 앞두고 도민 민생과 도정 현안을 적극 챙겨야 한다.

추석 연휴 도내 병원·의료원 등의 병실과 긴급 응급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민족 대명절 추석이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철(사진) 경북지사가 3일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지사는 별초 및 성묘 시에 벌 쏘임과 추석 연휴 고항 방문길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강조했다.

내년 국비 확보를 독려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책임성도 설명했다.

2025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른 경북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점검도 집중 이뤄졌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 예산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1821억원, 2025 APEC 경주 1548억원

등 총 391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사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내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과 직

결되는 문제로 실국별 구체적 대응 방향 수립과 증액 논리 확보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성을 재강조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 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국가 대개조"라며 일본의 도쿄도(東京都) 통합 모델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한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23개 특별구와 시군에 해당하는 39개 시·정·촌으로 돼 있다. 도쿄도는 기초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특별구와 시정촌이 공존·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특·광역시 체제와는 다르다.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도 중심의 통합이나 특례시 형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도쿄도 모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광역시나 도 중심 체제와 같은 어느 한쪽 중심의 통합체제가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발전해 나가는 지방 체제로 대구경북 통합 미래의 좋은 사례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울진 한수원 직원 자살... 직장 괴롭힘 의혹...

노조, 과도한 업무량 자살 원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 검찰 고발 이어가기 사법투쟁 '전면 선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0대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 사택에서 20대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사택 관리자와 함께 사택에 들어갔고, 숨져있는 A씨와 함께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논란이다.

사망직원 유족들은 이번 일과 관련, 언론 접촉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수원의 한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고인 이) 규제기관의 갑질과 간부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공황장애를 호소할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한수원 한울원전 관계자는 "블라인드 내부 글은 사실과 다르다. 거론된 간부들 면담 결과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울원전은 "해당 간부들이 심리불안정



상태에 있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자살 사건과 관련, '직장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한울원전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울원전, "거론된 간부들과 면담 결과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는 전혀 없었다. 2차 피해 심각해 대응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측은 "주5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 직원에 대한 2차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과도한 업무량이 자살 원인이라고 단정.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노조는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밝히기 위해 이어가기 사법투쟁을 선포했다. 이경수 기자

한동훈, "구미를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

김장호 구미시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지역 반도체 기업 원익엔씨 방문 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하고 클러스터화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고 경북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 대표에게 "구미국가산단의 활력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구미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역 반도체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소재부품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등 기회발전특구 지원 확대,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을 통한 구미역 KTX 정차, 한국은행 구미지점 재개설 등을 건의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대한민국이 계속 되는 발전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를 결정

한다고 본다"며 "(당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반도체 역사를 써 온 구미국가산단에서 진짜로 필요한 인프라를 한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며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을 방문한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진행되는 한국후계농업경인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도산서원 야간 개장 '밤의서정' ...

미디어아트·버스킹·성독 도산서원 야간정취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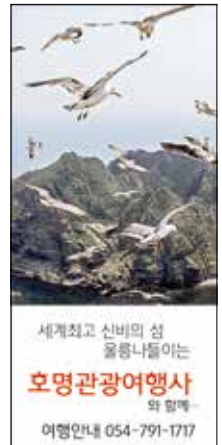
안동시는 도산서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2024 도산서원 야간개장, 밤의서정(抒情)'을 연다.

기간은 7~29일 매주 주말과 추석 연휴를 비롯한 공휴일 오후 6~10시까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산서원은 2020년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서원 건립 445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야간에 문을 열었다.

시는 지난 4년간 야간개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도산서원 야간정취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 도산서원 일대 정취를 밝혀줄 조명·조형물 및 포토존이 설치되고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된다. 도산서원 각 구역에서는 전문 배우들이 선비들의 생활상을 재현하며 관객들과 소통한다. 송명주 기자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4일 스타컨벤션 웨딩에서 열리는 영천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정식 및 장기자원봉사자 인증수여식에 참석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4일 안동시청 응부관에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90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9월 4일 수요일 2

달성군의회, 제9대 하반기 개원식

달성군의회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하반기 달성군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한 달성군의

회 의원들, 최재훈 달성군수, 군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 앞서 최재훈 군수는 참석한 모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하반기 의회 개원을 축하했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달성군의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상임위원회가 군민의 가슴속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교육 발전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 도약 준비 끝

DGIST 손잡고 과학영재학교 설립 달성이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중

달성군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손잡고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달 7일 DGIST 회의실에서 양 기관 간 과학 영재학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대구경북, 충남, 울산 등지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의 과학영재학교가 운영 중이며, 충북과 광주에서도 인공지능-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다. 특히 충남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달성군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배준식 달성군 부군수와 이견우 DGIST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DGIST의 우수한 교육 및 과학기술 역량과 바탕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영입하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달성군과 DGIST는 협력을 통해 달성군 내 과학영재학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가

읍 일대에 설립 예정 부지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영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특성과 전략을 마련해 지역 교육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혁신 타운 조성을 힘쓸 계획이다. 배준식 부군수는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이며,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리 달성이 그 중심에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성군은 과학 영재학교 설립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지역 교육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상 수상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 사례 부문 사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17회를 맞은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연구-지자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동구는 '동구 통합형(3-S)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동구 안심로 22길 도로를 지속 가능한 표준디자인(Standard)으로 안전(Safety)하고 미래지향적(Smart)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폭넓은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대구 동

구가 가진 공공디자인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20년 공공디자인 전담 팀 신설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주민의 생활 편의와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동구청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제도를 통해 공공디자인 도입에 체계성을 갖추고 이번 공모 수상작인 '동구 통합형(3-S) 디자인 시범거리'를 포함해 통학로, 방음벽, 주민광장 등 각종 시설 조성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안전성과 심미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한 성적 거둬

금6, 은12, 동10 수상으로 전국 3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금탑 수상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북도에서 개최된 2024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직종 1755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대구시는 산업용 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 등 47개 직종에 12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기계설계/CAD, CNC/선반, CNC/밀링, 주조, 요리, 산업용로봇 6개 직종에서 6명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금형, 냉동기술, 전기제어 등 11개 직종에서 13명이 은메달 수상(팀 출전 포함), 자동차차체수리, 가구, 제빵 등 9개 직종에서 10명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 달서구 소재)는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로 전국 1위 학교에게 수여되는 금탑을 차지해 대구시 선수단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대구하이텍고(대구 달서구 소재) 노성준(CNC/밀링)군은 대회 전체 참가자 1755명 중 차상위(2위) 득점 선수에게 수여되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대구시 기능인의 우수한 역

량을 뽐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1000만 원(금), 600만 원(은), 400만 원(동)의 상금이 지급되고, 입상 직종의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제대회 평가전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무더운 여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력을 갈고닦아 빛나는 결실을 이룬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술 산업의 발전과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지난해 살림살이 공개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재정공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군의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등 9개 분야 62개 공통공시 항목과 특수공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박재성 기자

주요 공시 내용으로는 군위군의 지난해 결산 규모는 6044억원으로 22년 대비 약 163억원 증가했다. 또한 군위역사지인입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관심사업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 예산정보 → 연도별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은 "재정공시를 통해 군위군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중구, 9월부터 양버즘나무 가로수 안전진단 실시

동덕로, 공평로 등 10개 노선 중구청은 9월부터 45일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돌풍, 기습 폭우 등으로 인한 가로수 도복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덕로, 공평로 등 10개 노선에 '양버즘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 양버즘나무는 내공해성 및 추위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었으나 수령이 오래되고 뿌리 잘림 등으로 인해 태풍, 돌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가로수의 쓰러짐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구는 2023년부터 울 삼반기까지 태평로, 달구벌대로 등 8개 노선의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859주를 진단해 총 41주를 제거 및 개체 변경을 완료하고, 최근 돌풍, 기습 폭우 등으로 인한 가로수 도복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 진

행 예정이었던 안전진단을 앞당겨 추진한다.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초현황조사와 육안정밀진단, 음파측정기(picus)를 이용한 비파괴 수간단층촬영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균열 및 동공 유무, 뿌리부분 버섯발생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은 즉시 제거하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구간별 가로수 개체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금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로 가로수가 쓰러진 경우 응급조치 등 사후 대처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가로수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처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달성교육재단, 달성동이 영어 실력 쑥쑥 키우다

달성군 초등 6학년 30명 필리핀어름방학캠프 수료식

달성동이 30명이 지난달 30일 필리핀 바콜로 드에서 4주간의 영어캠프를 마친 후 수료식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3.7:1의 높은 경쟁률을 선발된 관내 초6학년 학생들이다.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필리핀 현지 학교 교류 중에 큰 인기를 얻었던 K-POP 노래와 댄스 공연, 영어 스피치를 직접 선보였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의 학습활동은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에 관한 영상도 있어 볼거리가 풍성했다. 30명의 달성동이들은 현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영어, 수학, 과학 수업에 참여하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A군은 "또래의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수업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다. 나중에는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달성교육재단 최재훈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달성동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다른 나라의 낯선 환경에 노출된 달성동이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자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분명 보이지 않게 성장했을 것이다"라며 내적으로 성장했을 달성동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수료식에 참석한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장은 "4주간의 캠프가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번 경험이 좋은 기반이 되어 있고 싶은 분야에서 멋지게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재)달성교육재단은 오는 10월에 '2024 초등 영어 겨울방학캠프' 신청 접수율 3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여름캠프와 마찬가지로 관내 초6학년만 지원 가능하다. 항공료와 개인 용돈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달성교육재단에서 지원한다. 재단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여름캠프처럼 겨울캠프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110여명 참석 현안 공유 및 군부대 이전 유치 선연 군위군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충북 단양군에서 '2024년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위군 주민자치연합회 박용덕 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110여명

이 참석했다. 각 읍면별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강사의 주민자치 리더십 특강에 이어 군위군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한 군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진읍면 위원들이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청장, 중증장애인 고용 모범 기업 방문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북구 소재 기업체 참브레드를 방문해 베이커리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소

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브레드는 베이커리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신생기업으로 35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30%가 중증장애인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도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청장은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도경찰청,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집중 점검

경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한달 동안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에 대해 교통시설 집중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 보행자 횡단사고가 5건 이상인 지점 12곳으로 포함 북부서 관내 3곳, 안동서 관내 2곳 등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북경찰청과 경찰서 교통시설 합동점검단은 고령 보행자 횡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 가능여부, 횡단보도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 제거 등 맞춤형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1인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고령 1인가구 돌봄서비스 강화 등

경상북도가 3일 40%에 육박하는 도내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는 '1인가구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경북' 비전으로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의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주거 및 안전, 생활안정, 건강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1인가구 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정책추진협의체 구성과 경상북도 1인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1인가구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며, 안심키가거러 조성 및 안심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셋째,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1인가구 재무 경제 교육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청년에 꿈 상담, 청년근로자 사랑제육사업 등의 도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넷째,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청년근로자행복카드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과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운영 등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복기동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번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누구나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이며,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1인가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116만 6,594가구 중 44만 4,108가구가 1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38.1%다.

이는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조여은 기자



전기차·호텔 화재... 경북소방본부, 소방안전 종합대책 회의

완강기·에어매트 사용법 등 홍보 논의
소방안전교육 시 완강기 등 내용 담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인천 서구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8월 28일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소방안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서구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부천시 호텔 화재 관련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분석해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과 재난 현장에 적용성 있는 인명구조 방법 등 재난대응책을 마련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호텔 화재 시 인명피해 원인과 인명구조 요령,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진압 및 대응 방안, 완강기와 에어매트 사용법 등 언론홍보 대책, 인명 대피와 대피 유도 등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는 소방안전 체험시설을 이용한 완강기, 에어매트 등 사용법 교육 강화, 전기차 및 호텔 화재 대응 능력 강화 훈련, 완강기, 에어매트 사용법 등을 유튜브로 제작해 홍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촘촘한 화재 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시 완강기 등 피난장비 사용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와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유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압 방법을 체계화 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에어매트는 다른 인명구조 장비나 구조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에 사용하는 수단이므로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차장 화재와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유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압 방법을 체계화 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에어매트는 다른 인명구조 장비나 구조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에 사용하는 수단이므로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 앞두고 물가관리 대책논의... "물가안정 총력"

기관 합동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지역 20대 주요 성수품 집중관리

경상북도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기 쉬운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물가 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관계기관을 비롯해 교통, 농축수산, 환경, 보건 등 경북도 8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원산지 및 가격 표시 단속, 부정 유통 점검·관리 방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3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2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해 물가 모니터링을 활용, 가격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신장장애인 복지대회 열려

산하 지부 간 교류 활성화 계기

경상북도는 3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12회 경상북도 신장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와 회원, 가족, 자

원봉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2부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 투병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신장장애인의 우울증 해소와 저하된 체력 증진, 경북협회 산하 지부 간 교류 활성화, 신장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는 2004년 신

장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신장장애인 상담지원, 장기기증 홍보캠페인, 신장장애인 건강 교실, 혈액투석 장애인 이동지원, 지도자 연수회 등 도내 신장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권영문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상북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the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with the text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nd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was establish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Jeon Seok-min.)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 월성동 성품 전달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지회는 2일 월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라면 80박스(4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지회는 경주

시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현규 총무는 "이번 나눔 활동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기쁘며, 모두가

즐거운 추석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호 월성동장은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경주지회의 나눔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관광특구 지정 30주년... 지구별 활성화 나서

콘텐츠 보강으로 활성화 논의 조명테마거리 조성 2022년 시행 APEC 정상회의, 특구 혜택 활용

경주시가 관광특구 지정 30주년을 맞아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994년 8월 시내지구 9.65km, 보문지구 18.1km, 불국지구 4.9km 등 총 32.65km 규모로 관광특구 3곳을 지정받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숙박업 등의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대급리 융자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 180일 동안 공개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최상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가능하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응시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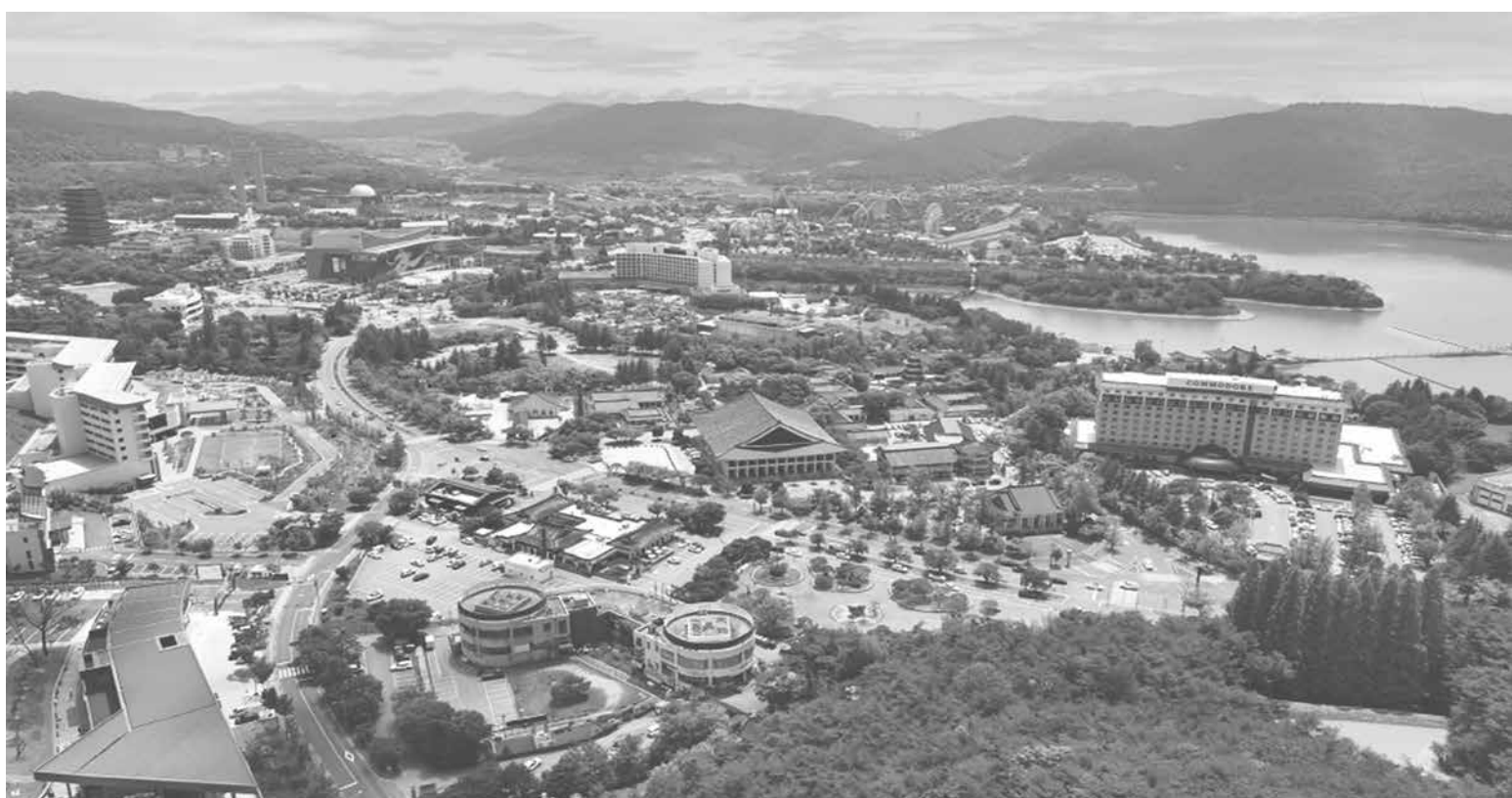
앞서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불국속박단지 상가 및 공원에 미디어 조명, 조명거리 안내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을 2022년 시행했다.

그간 3개 지구별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시내지구는 신라왕경지구,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등의 주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문지구는 경관 조명사업, 상징 조형물, 관광편의시설 조성, 식물원(다원) 건립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를 맞아 HICO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불국지구는 불국사, 석굴암, 민속공예촌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신라금속공예관 조성, 불국지역 야간조명 보강사업, 관광안내소 운영 등의 불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제2의 황리단



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고도 경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이자 상징이다"

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관광특구의 지정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보강해 국내 최고 관광특구로서의 위

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8월 현재 전국의 관광특구는 14개 시도에도 35곳이 지정돼 있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이벤트 진행

천년한우 최대 23% 등 할인 감포공설시장 할인쿠폰 지급

경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농특산물 10~20% 할인 △경주천년한우 최대 23% 할인 △수산물 할인쿠폰 최대 2매 지급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농특산물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경주물(gmall.cysoco.kr)에서 20%, 오프라인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본점(계림로 69)과 불국전(진현로1길 59-5)에서 각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10월까지 경주물에서 신규회원 5천원 쿠폰 증정과 우수 구매 후기 작성 회원 1만원 쿠폰 증정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경주천년한우는 외동·보문·용황·본점(용강)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갈비살, 제비추리, 부채살, 양지 등의 구이류 및 제수용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10~23%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산물은 감포공설시장에서 오는 8일까지 매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어서옵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구입의 경우 5000원 할인 쿠폰 1매, 4만원 이상 구입하면 5000원 할인쿠폰 2매 사용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질 좋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물가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물가 관리와 전통시장 안전 점검 경주시 "경주페이 인센티브 상향"

경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8일까지 시행되며, 민·관 협업을 통해 물가안정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먼저 경주시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16종의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경제산업국을 총괄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제정책과를 중심으로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선다.

또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불공정 거래 행위 막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인상 요인에 개입할 방

침이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경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월 최대 2만 8000원 캐시백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봉황, 중심, 북정모 등 시내권 상가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5%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이어 경주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성동시장, 중앙시장, 경주중심상가 등 전통시장 및 상점이 20여 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주낙영 경주시장의 성동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19곳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주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업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성동시장은 9월 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집중 점검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 조치 후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주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생 선발

대학생 450명 · 중고생 120명 총 10억원 장학금 지원 혜택

(재)경주시장학회는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2024년도 경주사랑 장학금을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경주시장학회는 대학생 450명, 고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총 570명을 선발해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1인당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경주시장학회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타 장학금과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9.3) 기준 경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그 자녀로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 3.0 이상으로 총장, 학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자면 가능하다.

중·고등학생은 경주지역 학교로 재학 중 성적 이 재적 학년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별 학급(인원수)에 의해 학교별 배정 인원수에 대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면 해당된다.

장학금은 11월 중 경주시장학회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발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경주시장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장학회 사무국으로(054-748-7760, 054-760-7350)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이사장(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용기와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천읍애향청년회, '모죽지랑가' 행사 연다

신라화가 발굴 전승사업 일환 다양한 체험 통해 지역민 화합

경주시 건천읍애향청년회는 오는 7일 건천초등학교 일원에서 신라화가 발굴 전승사업의 일환으로 제5회 '모죽지랑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죽지랑가는 삼국통일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던 신라 화랑의 노래로, 신라 효소왕(692~702) 때 득아가 화랑 죽지랑을 사모하여 지은 8구체 신라화가이다. 이 향가는 현존하는 향가 중 유일하게 실존 인물(죽지랑, 득오)과 장소(부산성, 모랑, 달래창, 여근곡), 그리고

작가가 전해지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학계에 관심을 받았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2017년부터 모죽지랑가의 유래지인 건천에서 신라화가 발굴 전승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뛰어난 역사적 자산을 발굴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스토리가 담긴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한 신라화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한 시상과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향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향



가 시연, 신라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가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식 행사 후에는 국악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주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면 자율방범대 대장, 백미 기부

강동면 자율방범대 장석현 대장이 지난 8월 29일, 강동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백미 10kg 2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석현 대장은 5년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달된 백미는 강동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대상자 발굴을 통해 필요한 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석현 자율방범대 대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며,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장한 강동면장은 "지속적으로 강동면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백미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건천읍장, 취약 가구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황혼 건천읍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주요 취약가구를 방문해 은누리상품권 전달하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황혼 건천읍장은 "추석은 가족과 함께 따뜻

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건천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매해 명절마다 취약가구에 은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명절에는 건천읍 455가구에 은누리 상품권(3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엔 전달된 은누리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취약가구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9회 영덕군수배 전국 탁구대회 성료

영덕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덕군탁구협회가 주관한 제9회 영덕군수배 전국 탁구대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31일 열린 개막식에 박형수 국회의원, 문성준 영덕군 부군수, 배재현 영덕군의회 부의장과 의원들, 김서규 체육회장, 윤혁진 경상북도탁구협회장, 하진석 울진군탁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

국 탁구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응원을 보냈다.

이번 탁구대회는 전국 각지의 탁구 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가해 개인 단식, 혼성 복식, 초심부, 단체전으로 나눠 기량을 겨루며 탁구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졌다. 조여은 기자



가을의 시작 알리는 '산소카페 청송정원' 공식 개장

연휴 거쳐 10월 초까지 만개 예상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지난해 가을 약 15만명 이상 방문

청송군은 가을철 꽃구경하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9월 2일 공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주민들과 17개 단체의 참여를 통해 13.8ha(42,000여 평) 규모의 청송정원에 백일홍 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백일홍 단지는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추석 연휴를 거쳐 10월 초순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일홍이 만발한 청송정원은 방문객들이 여유를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로 개방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입장가능 시간은 오후 6시)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단지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지난해 가을 9-10월 2개월 동안 약 15만 명이 방문하여 청송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말마다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예정되어 있어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가 협심한 결과 이런 대규모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송군은 가을철 꽃구경하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9월 2일 공식 개장했다.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발대식

김천시, 추진위원회 위촉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시작

"국보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가 3일 김천시립박물관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환수운동에 첫발을 내딛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김종섭 김천시, 송언석 국회의원, 나영민 시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80여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석탑이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석탑 이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김천에서 발굴된 유일한 국보인 "김

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반환을 위한 움직임은 2003년부터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전 시민이 석탑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석탑 반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남면 오봉리 일원인 갈항사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던 두 탑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1916년 경북공로로 옮겨졌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에 있다.

이경호 기자

영양군-경기도 하남시, 상생협력 자매결연

문화·관광·교육 등 노력
K-컬처 산업 시너지 기대

영양군과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2일 영양군 장계향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영양군의회의장 및 의원, 영양고추유통공사장, 민간단체장과 하남시의회의장 및 의원, 국제화추진협의회장, 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군과 하남시간의 자매결연은 상호 간 자매결연 의지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양 기관의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세부사항을 협의해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각 기관은 문화·관

광·예술·체육·경제·교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상호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양군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한글 조리사인 음식디미방을 토대로 K-Food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미사아일랜드에 한류복합단지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영양군과 경기도 하남시 간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양군의 자연과 전통문화, 하남시의 인프라 자원을 모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전달

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정례회의
통장 대상 의무자 교육 등 실시

대곡동은 지난 2일 대곡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9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먼저 최병근 도의원, 이복상 시의원 인사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동 공지 사항 전달,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 통장협의회 자체 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 공지 사항으로는 인구 증가 시책, 고향사랑

기부제, 체납세 납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군산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김천포도 축제, 신바람 행복 콘서트 등의 주요 사항을 홍보하였고, 통장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식 대곡동 통장협의회장은 "9월부터 김천의 주요 행사가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통장님들은 여러 주요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즐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바라며,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화목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영천시, 저출생 극복 실행과제 3차 대응 보고회

변동사항·예산확보 방안 논의
시군평가 대비·과제 추진상황 점검

영천시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 실행과제에 대한 3차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해 16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2차례 열린 대응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에 대해 주요 변동사항과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6월 경북 시군평가 내 도정 역점시책 지표에 추가된 저출생 극복 지표에 대해서 분야별로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출생 극복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등 함께 의기 투합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영천시는 경북도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과제와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영천시 특성에 맞는 저출생 사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진현 부시장은 "저출생 극복 관련 과제 추진과 시군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해, 영천시가 경북도 저출생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청도군 공직자 보고 역량 강화 특강

피플앤스피치 소속 강사 초빙해
내달 실습형 보고 역량 강화 교육



청도군은 2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제고하고 대면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하는 보고의 기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 8기의 공약 및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보고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피플앤스피치 소속 서유진 강사를 초빙하여 △보고서의 기본적인 틀 배우기 △보고 수령자의 유형 파악과 보고 브리핑 기술 △보고 구조화 방법 등 공직자 맞춤형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공직자들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추후 청도군은 희망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습형 보고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0월 중으로 2회 진행하여 보고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보고 역량 강화 특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직원들이 보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명확한 보고를 통해 청도군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여 청도의 미래 청사진을 모두 함께 잘 그려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현재 2명 마을세무사 활동 중

영양군은 지난 9월 2일 영양군 공설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2024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국제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영양군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로 세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제나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영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영양군은 현재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서는 우영



제 세무사가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세무사가 없는 영양군에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울릉, 여행업협회와 마케팅 협약

울릉군은 지난 3일 한국여행업협회와 울릉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치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회원 1700여 개사 및 특별회원 70여 개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행업 단체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여행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업과 공동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정윤환 기자

상주시 이안면, 어르신들에 음식 나눔

상주시 이안면은 지난달 31일 육오회 봉사단 체로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경로당(8개소)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치킨, 떡 등 간식(120여만 원 상당)을 후원해 미담이 되고 있

다. 류재현 육오회장은 "이번 간식 후원은 회원 들의 순수회비로 마련되었으며 경로당 어르신 들이 반갑게 맞아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봉 사의 참뜻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육오회는 1965년생 동기들의 모임으로 시작 한 8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 계층 세대에 연탄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영주시,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14~18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자녀병원 응급실 등 3곳 24시간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상황실 운영

영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와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시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인 영주적십자병원, 기독교병원, 자녀병원 응급실 3곳은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보건소, 병·의원 78개소, 약국 34개소까지 총 116개소가 참여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응급 및 일반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과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사·보건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정보센터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수 시 보건소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56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대비와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예천 은풍중, 사제동행 스포츠 문화체험

토요방과후 활동 골프 체험 예천 국궁장서 궁궁 원리 전달



예천 은풍중학교는 지난달 2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스포츠 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은 다양한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즐거운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하며 사제간의 정을 나누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오전 일정으로 진행된 골프 체험은 학생들이 평소 토요방과후 활동에서 익힌 골프를 골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학년별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강사님의 세심한 지도 아래 학생들은 기본적인 골프 자세와 스윙 동작을 다시 점검하며 연습을 시작했다.

특히, 올바른 그림 잡는 법과 정확한 타격 자세를 중점적으로 익혔다. 학생들은 1층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학년별로 팀을 이루어 실제 게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평소 연습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국궁 체험은 평소 학교 교육과정에서 익힌 국궁 기술을 바탕으로, 사범님의 지도하에 실전으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 국궁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국궁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범님은 국궁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정신 수양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전통 무예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국궁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야외 국궁장에서 145미터 거리에 있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당기며 긴장감과 집중력을 몸소 체험했다. 처음에는 활을 제대로 당기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점차 사범님의 지도에 따라 자세를 교정하며 활쏘기에 익숙해져 갔다. 순서대로 과녁을 향해 활을 쏘며 그동안 익힌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과녁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정확한 힘 조절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켰다.

이번 사제동행 스포츠 문화 체험활동은 단순히 운동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끼며, 동시에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를 얻었고,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교훈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2학년 100 학생은 "이번 체험을 통해 골프와 국궁을 직접 해보면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더 즐거웠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명주 기자

문경시, 서울서 문경오미자축제·경찰학교 홍보

강남구 강남스퀘어 광장 찾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행사



문경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2024년 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 개최 홍보와 제2중양경찰학교 유치 홍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문경오미자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일 평균 10만명이 방문하는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 광장에 홍보 부스

를 설치해 문경시 관계자, 오미자축제추진위원회,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방문자들에게 오미자슬러시를 나눠주며 관광 도시 문경과 특산품을 함께 홍보했다.

제20회 오미자축제 홍보와 더불어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국도의 중심 문경이 제2중양경찰학교 최적지임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동로면 적성리 525-11)에서 개최되며 오미자관련 제품전시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명가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활용된 오미자는 소화촉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당뇨병·빈혈을 개선하며 진해·거담 작용이 있어 기침이나 감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미자 최대 주산지인 문경시는 오미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5년부터 축제를 개최해 왔다.

봉화,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556 농가 560필지 대상 확인 4개 항목 중 3항목 ↑ 적합해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반기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으로 토양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대상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556 농가의 560필지를 대상으로 토양을 채취해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및 교환성 칼륨을 정량 분석해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4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내년에 2차 검사를 진행하며 3차까지 부적합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점검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경지를 대상으로 매년 5,000점 이상의 토양,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5억 원 이상의 분석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임시 베트남커뮤니티센터' 개소식 가져

한국 적응 위한 교육 장소 활용 봉화읍 삼계리 주택 리모델링

봉화군은 지난달 31일 봉화읍 삼계리 생기마 2길 36-18의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시 베트남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봉화군의회 김상희, 이승훈 의원,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주한베트남공동체와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시 베트남커뮤니티센터는 봉화군 역점추진 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에 대한 베트남 이주배경인들의 참여와 역할 분담을 위해 문



을 열었다. 특히, 베트남 이주배경인들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과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이주 희망 공동체 회원 및 가족에 대한 봉화군 이주(전입)를 유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작년 3월 다문화가정 초청행사를 시작으로 문화교류캠프, 경제독립캠프, 봉화 송이축제 참가, 문체부 장관 및 주한베트남대사 초청 행사 등 주한베트남공동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의 인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 베트남커뮤니티센터의 개소가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주한베트남공동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화군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본 커뮤니티 센터는 봉성면 창평리에 14억의 사업비로 건립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환급 국산 원물 70% ↑ 가공식품 포함

영주시는 해양수산물 주축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9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12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준다.

▷3만 4천 원 이상 ~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이 환급



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법인(개인/기업)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횡집 등 일 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원도심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054-634-7668)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성주군,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복지도시로의 도약

노인인구 지속적 증가... 다양한 욕구 반영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 확대 구축 진행 협업 · 체운 측정 헬스케어 키오스크 활용

성주군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와 소통하는 공감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를 만들기 위해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100세 시대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스마트하게

성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월 말 기준 총인구의 37.8%를 차지하며 매년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우선 스마트 경로당 이란 화상회의 플랫폼과 헬스케어 키오스크가 설치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스마트타운 및 스마트 경로당 91개소를 설치하고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군비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 확대 구축과 스튜디오를 완공했다.

이에 실버요가,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등 동시에 여러 경로당이 접속하여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양방향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협업, 체중, 체운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편리하게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돕는 스마트 매니저를 배치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건강관리,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스마트 경로당으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 높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24시 통합돌봄센터 운영

성주군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하고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틈새·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참외생산지 주소특인 성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으로 인해 새벽과 밤 작업이 많은 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공백없는 돌봄환경 조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성주창의문화센터 내 위치한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는 365 열린어린이집, 24시 공동육아나눔터, 24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며, 영유아부터 초등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망은 물론 별고영양화관, 국민실내체육센터, 기뻐카페 등이 함께 있어 돌봄과 문화, 체육,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학부모 및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협력을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nglish)-편한 도시 성주-어린이집 영어특성화 교육

지방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E(english)-편한 도시 성주 사업을 시작한 성주군은 생애주기 첫 단계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11개 어린이집에서 다국적 외국인 영어교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형태의 학습을 통해 영어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애 최초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영어를 접함으로써 영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외국인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거주 만족도를 높여 인구유출방지 및 유입에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안전판 구축-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성주군은 올해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연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처음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의 방과 후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참여를 통해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자립 지원은 물론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을 처음 시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132시간의 자조모임, 직장탐방, 음악미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없는 만큼 장애인에게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성주군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놀면서 배우는 생활 속 작은 과학-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성공적 운영

"과일이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국 최초로 개관한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이 성주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 말 준공하였으며, 지상 3층에 연면적 999.54㎡, 전시면적 726.3㎡로 총 32종의 과학체험물을 구성하였고 주요 관람 대상은 10세 이하 어린이이다.

5월 28일부터 한 달간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6월 28일 정식 개관 후 관내는 물론 인근 대구, 구미, 칠곡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입소문과 관람후기를 통해 큰 호응을 얻으며 개관 3개월만에 관람객 10,000여명을 돌파했다. 8월부터는 과일실현실에이달의 프로그램을 오픈하였고, 점차적으로 4주 프로그램과 상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어린이 과학자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는 탐구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온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